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최재혁	학번	
이메일	cjhappy700@gmail.com		

대학원명	(대학원 / 전공) University of Kentucky / MPP	(국가) 미국
기 간	2020.1 ~ 2020.12(1년)	[귀국일:2020년12월23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3페이지 이상; 10pt. 1줄 간격)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표지 이외에 3페이지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자녀학교 등)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 당 수강과목 수, 각 수업의 구성, 논문작성 강도 등)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교학처장 귀하

2021 년 1 월 일

신 청 인 : 최 재 혁 (인)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 도착(여정) 및 정착지원

켄터키 대학(보통 UK라고 부름)이 있는 켄터키주 렉싱턴으로 가기 위해 애틀랜타를 경유하였으며, 도착한 날부터 약 3일간, UK 마틴스쿨의 한국인 담당 교수님이신 김두옥 교수님과 직원분께서 세심하게 정착을 준비해 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았음.

은행업무(계좌개설), 핸드폰 및 인터넷 개통, 아파트 계약, 전기 및 수도 연결 등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직원분이 직접 함께 동행하며, 헌신적으로 도와주셨음.

제가 갔을 때는 코로나 발생 전이라 은행, 핸드폰 가게 등을 직접 방문하여 업무를 볼 수 있었고, 즉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아마도 온라인 방식으로 업무를 보고 따라서, 시간이 다소 소요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음.

- 기후

한국 날씨와 비슷하게 4계절이 뚜렷하게 있음. UK가 소재한 렉싱턴은 중소도시이기 때문에 공기가 매우 깨끗하여 한 여름에는 아파트 단지에서 반딧불이를 볼 수 있음. 또한 인근 State에는 간혹 Tornado나 홍수로 인한 피해가 있으나 Lexington은 지금까지 Tornado로 인한 피해는 없다고 하며 겨울에 폭설이 내리는 경우는 간혹 있음

1~2월 경에는 흐리고 비가 오는 경우가 잦음. 다만, 비가 와도 오전에만 잠깐 오고, 오후에는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음

- 지리적 위치

켄터키주는 미국 중남부에 위치하며 주변에는 Tennessee, Virginia, West Virginia, Ohio 등 7개 주로 둘러싸여 있음. 주도는 Frankfort 이지만 Lexington은 Louisville 다음으로 큰 도시이며 미국에서는 61번째로 큰 도시임. Lexington은 31.5만명 규모의 중소도시로 Kentucky Horse Park, Keeneland 등이 소재하고 말 산업이 유명하여 'Horse Capital of the World' 라고 알려져 있음. 또한 잔디가 매우 좋아 Bluegrass로 알려져 있으며 조경분야 교과서에 나오기도 하고 우리나라 골프장에서 잔디를 수입하기도 함.

- 생활관련 사항

- (차량) 한국처럼 대중교통이 많지 않으므로 반드시 차는 구입해야 하며, 저 같은 경우는 선배로부터 차를 인계인수 받아(대부분 인계인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음), 차량 구입에 큰 어려움은 없었음. 교육생 대부분이 차량을 이용한 가

족 여행을 생각하고 있으므로, 토요타의 시에나를 많이 이용하는 편임.

- (운전면허) 필기시험은 시험을 신청하면 그 자리에서 볼 수 있으며 한국어로 시험을 볼 수도 있음. 시험문제는 매우 쉬우나, 다소 생소한 영문 용어(예시: turnabout)는 미리 숙지할 필요가 있음. 주행시험은 본인 차를 이용하여 15~20분 가량 시험장 주변을 운전하는 것으로 시행되며 평행주차, pull over, turnabout, stop sign 정차, left and right turn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코로나로 운전면허 시험장이 셧다운 됐으나, 지금은 오픈한 상태임. 신분증으로서 여권을 매번 들고 다니기가 불편하고(분실 우려), 국제 운전 면허증은 유효기한(1년)이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증을 조기에 딸 것을 추천함.
- (자동차보험) 위에서 이야기한 현지 직원의 안내에 따라 보험 중개인을 만나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데, 대부분 State auto farm 또는 Progressive에 가입하지만 보험료가 한국에 비하여 비싼 편으로 6개월에 600~900 달러가 소요됨. 6개월 단위로 2번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데, 처음 가입했던 보험사를 다시 이용할 수도 있고, 견적을 받아보고 저렴한 곳으로 옮길 수도 있음.
- (자녀교육) Lexington은 Public School이 잘 되어있으며 주소지 인근에 평가가 양호한 Public School에 입학할 수 있음. 저는 Rosaparks 초등학교와 Beaumont middle school에 아이들을 보냈음. 초등학생(한국기준 1~5학년)은 주소지에 속하는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등록하면 등교가능하며 중학생은 교육청을 방문하여 English Level Test 후 학교를 배정받음(Level test는 초등학생도 실시).
자녀를 학교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가져간 예방접종증명서를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Immunization Form으로 바꾸어야 하며 이는 인근의 Little clinic(한국으로 치면 조그마한 동네 병원, Kroger 안에 있음)에서 할 수 있음. 또한, Physical Test 와 T.B. (결핵) 검사를 받아 해당 양식을 제출하여야 함.
현재는 코로나 상황이라 온라인으로 수업이 대체되었으며(카운티마다 다름), 온라인 수업은 아주 내실있게 진행됨. 한국은 EBS를 틀어주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매 과목마다(중학교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수업 진행됨. 50분 수업 후 10분 휴식. 12시~1시는 점심시간) 선생님들이 라이브로 수업을 진행함.
- (Mobile Phone) 주요 통신사로는 Verizon, AT&T, T-mobile 등이 있으며 이외에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Go-phone, Cricket, Sprint 등 Second provider들이 있음. 한국과 달리 통신사별로 Coverage가 다르므로 이를 감안하여 통신사를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Cricket의 경우 4인 가족 월 100달러 수준

으로 개통할 수 있음.

- (Shopping) Walmart, Kroger, Costco, Sam's club 등 대형 할인마트와 Macy's, Dillards 백화점이 있음. 그 외에 미국 특유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마트로 Whole food market(유기농 야채 위주로 다소 비싼 편)과 Trader Joe's market이 있음. 그 외 스포츠용품 할인매장인 Dick's, 상설할인 매장인 TJ Maxx, Mrshall 등 대부분의 매장들이 소재하고 있음. 또한 상설 Outlet 매장은 50분 거리에 Simpsonville Outlet, 2시간 거리에 Cincinnati Premium Outlets 매장이 있음. Lexington 소재 한인 마트는 Seoul Market, Donyang Market 등 2개가 있음.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UK의 Martin School은 Public Affairs Programs 부문에서 미국 대학원 중 25위이며 Public Finance and Budgeting Specialty는 4위로 평가되고 있어 한국에는 잘 알려져 있는 대학은 아니지만 교수 및 학생들의 자부심은 강한 편임. Martin School의 졸업생은 취업률이 높은 편이어서 제2의 취업을 위한 현지 직장인이나 학부 졸업생이 많이 진학하려고 함.

교육 내용 중 상당부분이 일반적인 이론보다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사례 등을 많이 다루고 있음. 다만, KDI GMP와 연계된 학위과정의 경우, 현재는 논문(캡스톤)이 면제된 조건으로 수업이 진행되어 학업에 큰 부담없이 공부할 수 있음.

전반적인 커리큘럼은 공공정책에 대한 정책과정 수립, 과정 및 평가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위한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초과목들도 동시에 수행되고 있음. KDI에서는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로 SPSS를 이용한 반면, 켄터키에서는 분석프로그램으로는 STATA를 주로 쓰고 있음. 실제로 STATA가 미국에서는 논문 작성시 가장 선호되는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이라고 함.

2020년도는 코로나로 인해 3월부터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었으며, 온라인 수업으로 하다보니 실제 수업에 참석하는 것보다 흥미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음. 다만, 교수님들은 여전히 열정적으로 수업자료를 준비하시고, 발표물을 준비함. 그러다보니, 오히려 온라인 수업의 경우, 오프라인 보다 과제가 더 많았던 느낌이 듦.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 당 수강과목 수, 각 수업의 구성, 논문작성 강도 등)

켄터키 대학원의 마틴스쿨에서는 자기가 재량으로 선택해서 수강할 수 있는 과목은 없음. KDI학생을 위해서 특정 과목을 정해주며, 봄학기 3과목, 가을 학기 4과목을 수

강해야 함.

각 수업은 통계학, 경제학 등의 기초과목과 조직론, 정책론 등의 주요과목이 있으며, 데이터를 다루는 통계학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으면 쉽게 접근할 수 있음. 또한, 전반적으로 우수한 커리큘럼이다 보니 공공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음. KDI에서 그랬듯이 각 과목마다 성의를 다한다면 학위수여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교수진들도 한국 유학생들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됨.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기숙사는 없으며, 아파트 임차비용은 위치나 평형마다 상이하나 대략 월 700~1100달러 수준임. 아파트들은 대부분 20년 이상된 목조주택(3층 이하)으로, 다소 낡았으나, 가격 대비 만족도는 높음.

아파트 임대료에는 전기, 수도, 인터넷 요금 등이 포함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함.

근처의 수많은(위에서 이야기한) 마트를 통해 다양한 음식을 아주 싸게 구입할 수 있으므로, 생활 만족도는 높았음. 특히 소고기 값이 한국의 절반 이하 수준이며, 가솔린(휘발유) 가격은 한국의 1/3 수준임(거의 대부분 차량이 휘발유임).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 (여행) 비록, 코로나로 많은 곳을 다닐 수는 없었지만, 인적이 드문 국립공원이나 주립공원을 위주로 나름대로 열심히 여행을 다녔음. 그리고 워싱턴 DC와 시카고, 뉴욕 등 전세계적으로 유명하고 큰 도시들을,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전에 모두 여행할 수 있었음. 여름방학이 길어(약 석달), 가족과 함께 차량을 운전하여, 애틀랜타, 플로리다를 거쳐 미국 땅끝마을인 키웨스트까지도 다녀왔음. 가족과 함께 인생에 가장 멋진 순간이었던 것으로 기억함.

- (카누) 렉싱턴과 그 인근에는 주립공원과 자연호수가 많고, 특히 코로나로 적극적으로 여행을 다니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어, 카누를 구입하였음. 아이들은 어린이용 카누를 각각 1대씩 타고, 어른은 2인용 1대에 같이 탔음. 한국에서는 절대 해 볼 수 없을 경험일 것으로 생각되며, 호수 중간에 누워 하늘을 바라볼 때의 그 느낌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음. 장거리 이동을 위해 차량 천장에 J-Rack을 설치하여 키웨스트, 미시간 호수 등에서도 카누를 탔음. 1년간 미국 생활 중 단연, 최고의 경험이었다고 생각함.

- (골프) 미국에서도 켄터키는 특히 골프의 천국이라 할 수 있음. 차량으로 20분 이

내에 18호 규모 골프장이 10개 이상 있으며, 1인당 비용은 30~40불에 불과함(카트포함). 다른 주에 비해서도 훨씬 저렴한 편임. 연습장도 한달에 80~90불 수준으로,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음(골프장과 연계된 연습장도 많음).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GMP 2년차 해외 경험은 제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임. 가족과 함께,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국외 생활을, 그것도 즐거운 여행, 스포츠, 저렴한 생활비 등과 함께 누릴 수 있었음.

제가 선택한 켄터키는 매우 아름답고, 안전하여 가족들 모두가 만족하고 좋아했음. 장래에 혹시 기회가 생긴다면, 꼭 다시 한번 켄터키 렉싱턴을 다시 돌아보고 싶음.

다만 아쉬웠던 점은, 코로나로 인해 인근의 YMCA와 도서관을 충분히 이용하지 못했던 것임. YMCA는 가입비가 한달에 80~90불(가족회원) 정도인데, 수영장, 농구장, 헬스장 등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음(코로나 확산 전까지는 거의 매일 이용하였음. 특히 수영장). 도서관에서는 UK 학생이 무료로 아이들 과외를 해줌(숙제 도우미). 이것도 일주일에 2번 이용하였음.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UK로부터 입학승인을 받은 후, 대학에서 보내준 I-20로 F-1 비자를 발급받았으며, 비자 발급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음.

출입국과 관련하여, 한국으로 입국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썼음. 특히 렉싱턴에서 애틀랜타까지는 미국 국내선이라 비행기가 작고, 대부분 미국인이라 특별히 주의를 기울였음. 내가 이용한 항공사(대한항공, 델타)는 다행히, 항공사에서 좌석 배정을 한 칸씩 띄워서 해주고,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안내하여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을 수 있었음.

미국은 마트 또는 온라인 거래시 환불이 매우 용이한 것 같았음. 구매자의 단순한 변심, 착오 또는 물건의 하자 등 이유를 묻지 않고, 보증기간 이내이면 매우 간단한 절차를 거쳐 100% 환불해 주거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줌.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가족들과 함께 하는 모든 순간을 즐기실 것. 공부할 때도, 쇼핑을 할 때도, 여행을 할 때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그 순간, 매일매일을 즐기면 됨.



KDI School, 263 Namsejongro, Sejongsi, KOREA

TEL: 82-44-550-1080 FAX: 82-44-550-1232

HOME PAGE: <http://www.kdischool.ac.kr>